제 6교시

2026년 에스체트능력시험 답안지

하이케 영역

축하형

하이케 출생일

제작	칼랑코에

수험 번호	1	8	7	9	—	1	1	0	1

○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(닉네임)을 정확히 쓰시오.
○ 표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.

> 생각만 해도 좋다.

> 372화 하이케 대사입니다.

○ 해당 답안지는 에스체트능력시험 하이케 영역 답안지입니다.
○ <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> 내용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
○ 각 문제 아래 ->는 정답이 나오는 회차입니다.
○ 사용된 폰트는 마루 부리를 사용하였습니다.
○ 울리케의 생일을 축하하셨다면 100점 만점인 시험입니다.
○ 어디까지나 재미로 즐겨주세요.

※ 즐거운 문제 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※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.

마차살평가원

제작 : 칼랑코에

2026년 에스체트 모의고사 1회 답안지

제 6교시

하이케 영역

축하형

1. 하이케의 학생군사단 2차 시험 팀원으로 옳은 것은?

① 율리아 체링겐
② 울리케 클라이스트
③ 엘리아스 호엔촐레른
④ 레오나르드 비텔스바흐

-> 144화

2. 하이케의 머리색으로 옳은 것은?

① 밝은 금색
② 어두운 금색
③ 밝은 갈색
④ 어두운 갈색

-> 144화

3. 하이케의 첫 대사로 옳은 것은?

① 별 건 아니고.
② 내 이름 알고 있었구나.
③ 무난하게 건물로 가자.
④ 나도 지금 쓸 수 있는 능력은 아냐.

-> 145화

4. 하이케가 루카스와 대화할 때 커피에 넣은 각설탕의 개수로 옳은 것은?

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

-> 148화

5. 하이케 어머니 성함으로 옳은 것은?

① 멜라니 아인시델 ② 마리안 아인시델
③ 요제핀 아인시델 ④ 헬레네 아인시델

-> 229화

문제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.

6.

모두의 눈이 한쪽으로 돌아갔다.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1분반의 아인시델이 [ ] 하게 대답했다.

① 확고
② 단정
③ 단호
④ 결연

-> 159화

7.

루카스 : "…물론이지. 괜찮으니까 가도 되냐고 물은 거야. 그보다 속 안 쓰려?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술만 계속 부으면 탈날 텐데." 하이케 " [ ] . 난."

① 멀쩡해
② 괜찮아
③ 문제없어
④ 양호해

-> 160화

8.

루카스 : "하이케. 그걸 알아 가는 과정이 친해지는 과정이야. 나는 그렇게 생각해." 하이케 : "…미안해.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, 나한테 실망할까 봐 [ ] ."

① 두려웠어
② 무서웠어
③ 겁났어
④ 불안했어

-> 162화

제작 : 칼랑코에

2026년 에스체트 모의고사 1회 답안지

제 6교시

하이케 영역

축하형

문제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. (9~12번)

9.

하이케 : "…미쳤다는 말이야? 설마. 루카스 말대로 정말 아파 보이긴 해. 벌써 손가락 관절 아래쪽은 피가 안 통하잖아. 식물이라고 해서 [ ]이 높지 않을 줄 알았는데,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."

공격력
-> 203화

10.

하이케 : "…좀 뜬금없겠지만, 음, 아까 말했어야 했는데. 출동 상황이거나 내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도움이 되고 싶으니 언제든지 말해 줘. 이제 나도 너희 [ ]이니까."

팀원
-> 214화

11.

하이케 : "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. 내가 한창 찍으러 돌아다닐 때만 해도 직접 들고 자기 얼굴 찍는 사람은 못 봤는데. 요즘은 이게 [ ]?"

유행이야
-> 228화

12.

하이케 : "이번에도 끝까지 해 보기 전에 도망칠 생각 없어. 내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."
하이케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우리에게 물었다.
하이케 : "그럼 끝까지 같이 [ ]?"

해 볼 거지
-> 372화

13. 하이케의 고유능력을 서술하시오.

사람, 물건에 손을 대면 과거를 읽을 수 있다.

->160화, 162화

14. 하이케가 자주 다니는 사진관에 하이케가 값을 지불한 방식을 서술하시오. (1학년/2학년 2가지)

1학년 : 사진관 가구를 전부 사 줌.
2학년 : 현금으로 지불.

-> 240화

15. 11월 01일은 하이케 아인시델의 생일입니다! 축하의 말을 남겨주세요.

하이케 생일 축하해!

제작 : 칼랑코에

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아. 표준이 존재하는 집단에서 표준 외 존재는 규율을 어긴 이가 되지. 각자의 조건을 고를 수 없고 그저 자연히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첫 숨을 들이마신 순간부터 그 인간은 죄인이 되는 거야. 그런 인간은 집단의 힘으로 단죄해 마땅한 사람이니 사람들이 나처럼 평균에 수렴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껏 혐오하는 이유는,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했어.

그래서 나는 혐오받는 게 두렵지 않아. 내가 감정을 갖고 싶어 하는 건 남들이 날 괴상하게 보기 때문만은 아냐. 내가 두려운건, …과연 두렵다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다. 내가 궁금했던 건 이것뿐이었어. 과연, 내게도 가능성이 있었을까?